정보

György Ligeti, Cello Concerto
작곡가: György Ligeti(1923–2006)
작품명: Cello Concerto 또는 Concerto for violoncello and orchestra
작곡 연도: 1966년
세계 초연: 1967년 4월 19일, Berlin. Siegfried Palm 독주, Radio Symphony Orchestra Berlin,
Henryk Czyż 지휘
장르: 독주 첼로와 소편성 관현악을 위한 2악장 협주곡
헌정: Siegfried Palm
출판: Peters(공식 Ligeti 작품 페이지의 출판사 링크), Schott(Schott 카탈로그 표기)

Wikipedia: Cello Concerto (Ligeti)

개요
György Ligeti의 Cello Concerto는 독주 첼로와 소편성 관현악이 음량의 대결보다 음색과 밀도의 변화로
관계를 맺는 2악장 협주곡이다 . 1966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 1967년 4월 19일 Berlin에서 Siegfried Palm의 독주, Radio Symphony Orchestra Berlin의 연주, Henryk Czyż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 첫 악장은 Atmosphères 유형의 정적이고 연속적인 음향을 만들고, 둘째 악장은 Aventures 유형의 돌발적인 사건과 소음성 제스처를 이어 간다.

출판 정보

György Ligeti 공식 작품 페이지는 이 곡의 출판사로 Peters를 연결한다. Schott 카탈로그는 Schott를 표기하므로 , 출판사 정보는 자료에 따라 Peters와 Schott로 나뉜다. 공식 해설은 두 악장을 1960년대 Ligeti 의 서로 다른 작품 유형과 연결한다. 첫 악장은 리듬이 거의 없는 정적 ·연속적 음악이고, 둘째 악장은 동적이며 급작스러운 사건이 콜라주처럼 이어지는 음악이다.

Ligeti의 해설은 이 작품의 음정 언어를 반음계적으로 설명하면서도 12음기법의 체계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협주곡의 통일성은 특정 음렬보다 음색, 음역, 지속, 밀도가 변화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소요 시간

공식 작품 페이지는 연주 시간을 약 16분으로 제시한다. 공연 자료에서는 15~17분으로 안내되기도 하며, 템포와 연주 조건에 따라 전체 시간이 달라진다.

편성

편성은 독주 첼로와 소편성 관현악이다.

- 목관: 플루트 1(피콜로 겸함), 오보에 1(잉글리시 호른 겸함), 클라리넷 2(제 2 클라리넷은 베이스 클라리넷 겸함), 바순 1
- 금관: 호른 1, 트럼펫 1, 트롬본 1
- 그 밖의 악기: 하프
- 현악: 바이올린 I·바이올린 II·첼로·더블베이스의 5부. 현악군을 8·7·6·5·4명으로 두거나 각 파트를 한 명씩 배치한 독주적 편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공식 페이지는 독주자를 포함한 전체 연주자 수를 40명으로 안내한다. 겸임 악기와 하프, 현악의 작은 규모가 독주 첼로와 관현악을 하나의 좁은 음향 공간 안에 놓는다.

협주곡 형식의 재배치

이 작품에서 독주 첼로는 처음부터 관현악을 압도하는 큰 음량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거의 들리지 않는 첫 소리와 미세한 음색 변화가 독주자의 존재를 만들고, 관현악은 그 작은 소리를 둘러싼 음역과 밀도를 함께 바꾼다. 전통적인 독주 대 합주의 구도는 음량의 경쟁에서 지각과 음색의 상호작용으로 이동한다.

두 악장의 대비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첫 악장의 정적인 지속은 소리가 서서히 생겨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길게 늘이며, 둘째 악장의 급격한 사건은 활의 움직임과 소음, 짧은 제스처를 전면에 내세운다. 두 악장 모두 독주자의 기교를 독립된 과시로 분리하기보다 앙상블의 물질적 소리와 결합한다.

I. 정적 음향의 긴장 아치

첫 악장은 *Atmosphères* 유형으로 설명되는 정적이고 연속적인 음악이다. 리듬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독주 첼로가 거의 들리지 않는 음량에서 출발하고, 음색·음역·밀도가 천천히 확장된다. 형식은 선율의 연속보다 하나의 긴장 아치로 조직된다.

아치의 정점에서 독주 첼로는 높은 자연 배음으로 급격히 올라간다. Ligeti는 이 순간을 활의 압력이 물리적 한계에 닿아 소리가 찢어지는 상태에 비유했다. 따라서 높은 배음은 장식적인 고음이 아니라, 악기의 물리적 행위가 형식의 절정으로 바뀌는 사건이다.

II. 사건과 소음의 연쇄

둘째 악장은 *Aventures* 유형의 동적이고 급작스러운 음악이다. 여러 에피소드가 콜라주처럼 이어지며, 사건의 순서는 완전히 정해진 연쇄도 무질서한 나열도 아닌 반쯤 정렬된 흐름으로 제시된다. 첫 악장의 긴

지속과 달리 활의 방향, 짧은 음, 음색의 돌변이 음악의 진행을 만든다.

종결부의 독주 첼로는 활로 내는 소리에서 pizzicato 로 이동하며 소음성 음향을 만든다. Ligeti가 whispering cadenza 라고 부른 이 카덴차는 전통적인 화려한 독주 종결과 다르다. 피치카토는 마지막에 현을 살짝 건드리는 희미한 접촉으로 줄어들고, 둘째 악장은 소리가 사라지며 끝난다.

독주 첼로와 앙상블

플루트와 피콜로, 오보에와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과 베이스 클라리넷의 겸임은 같은 파트 안에서 음색과 음역을 바꾼다. 하프와 현악은 여러 음량과 음색을 함께 만들고, 독주 첼로는 그 안에서 자연 배음과 소음성 주법을 번갈아 드러낸다. 이 편성은 독주선과 반주를 고정된 두 집단으로 나누기보다 , 서로 다른 재료가 하나의 음향 조직을 이루게 한다.

작품의 반음계적 언어는 12음기법의 음렬 질서와 구별된다. 첫 악장의 연속적 음향과 둘째 악장의 분절된
사건은 서로 다른 표면을 갖지만, 두 악장 모두 음정 자체보다 음색과 음역의 이동을 통해 긴장을 만든다. 독주 첼로의 높은 배음과 종결부의 속삭이는 카덴차는 이 원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들려주는 두 지점이다.

초연과 연주 맥락

Siegfried Palm은 초연 독주자이자 헌정 대상이었다 . 1967년 4월 19일 Berlin에서 Palm, Radio Symphony Orchestra Berlin, Henryk Czyż가 처음 연주한 사실은 이 협주곡이 독주 첼로와 소편성 관현악의 결합을
전제로 쓰였음을 보여 준다. BMC Records와 Toronto Symphony의 공연 자료도 이 곡을 Ligeti의 협주곡 레퍼토리 안에서 소편성 ·2악장 작품으로 소개한다.

주요 자료

Concerto for violoncello and orchestra, György Ligeti 공식 작품 페이지

György Ligeti 작품 목록

Schott Music, Concerto catalogue

BMC Records, Eötvös·Umze·Ligeti·Kurtág at Carnegie Hall

Toronto Symphony Orchestra 프로그램 PDF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10:32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10:32 UTC by 안준영